

참불자의 출발점은 佛恩에 감사하는 것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불법을 전하려는 부처님과 관음보살

골칫덩이 손오공 물리치신 부처님, 천궁에서 온갖 대접 받으시고 서천으로 돌아오신다.
사나운 원숭이를 만나서 그러셨을까?
음란하고 혼란하고 분란 많고 환란 많은 남섬부주 그 인간들에 대한 큰 자비의 마음을 내신다.
'내게 있는 진리의 창고 그 삼장의 법문을 그 땅에 전하리라. 그리하여 그 땅의 신앙심 깊은 이가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귀한 법을 받아 지니고 돌아가게 하리라. 누가 가서 이러한 나의 뜻을 남섬부주에 전하겠느냐?'
자비심의 화신 관세음보살 응답하신다.
'제가 가오리다 저한테 말기소서 그 땅 가서 훌륭한 이 찾아, 경 구하러 오는 일 부촉하고 오셨나이다.'
부처님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다.
'자비심 넘치고 지혜 충만한 그대라면 나의 뜻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요. 그대의 신통력이면 단숨에 갈 길이지만 오는 이에게 행로도 알려주고 또 중간에 도움을 줄 존재들을 인배하면서 낮게 낮아 천천히 살피면서 가시오.'



그림 · 최주현

아쉽겠어요? 그런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내어 진리를 전해주신 그 큰 은혜!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겠지요? 물론 부처님의 본분에서야 그러한 자비심이 없다면 부처님일 수가 없겠지만, 우리 중생의 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고향을 헤쳐 나가면서,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불자가 되는 출발점 아닌가 싶네요. 그 감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겠지만, 저는 이렇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기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못한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괴롭게 이 세상을 한탄하며 살았겠습니까? 참으로 고맙고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처님의 큰 가르침 열심히 받아 실천하며, 나날이 부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칠계님! 맨날 “기도드리니까 꼭 들어주시더라!” 하는 감사에만 머물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발전을 해야지요. 제 이야기에 무슨 인연으로인지 계속 들으려 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조치는 말씀만 하지 말고 이런 때 고개 몇 번 숙여주려면 주임새도 넣어 보세요! 어? 정말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아, 삼괘 선생 하는 말에 따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부처님께서 더더욱 어여뵈 여기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요? 예, 말을 말아야겠네요. 그래도 그 말씀 옳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맘으로 기도하면 기도도 더 잘 될 거라는... 단지 잘 들어주시니까 보다는 좀 큰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늘 부촉한 거 달라고 칭얼거리는 기도보다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예뻐

불법을 전하는 마음이 모아지면 “현장 법사가 너희를 고통서 건질 것” 관음, 손오공·저우능·사오정에 언질

겠지요.

아무튼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삼장(三藏:經과 律과 論,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를 말함)의 법을 남섬부주의 동쪽 땅에 전하려 하시네요. 그런데 그 때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나는 법력 있는 이를 뺏아 동녘 땅에 보내 착한 이를 찾게 하고, 그 착한 이가 온갖 험한 강과 산을 건너고 넘어 고생을 겪으면서 여기로 오게 하고 싶다”

예고~ 부처님이 무슨 심술이 그렇게 심하신가요?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오게 하고 싶으시다니. 좀 편하게 오도록 한다면, 아니면 기왕 자비심 내신 길에 친절환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서유기 저 앞으로 가면 손오공이 요괴 때문에 무진 고생 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리는 대목이 있어요. 불보살이 직접 가져다주면 좋을 것을 게으름 피우면서 사람 고생시키느냐, 아니 원숭이 고생 시키느냐... 그런 투정이요. 그 때 관세음보살님이 타이른 말이 있지요? 뭐냐구요? 미리 말한 재미있죠. 대강은 그런 고생을 겪지 않고 쉽게 얻으면 그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만 귀엽게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며 부처님 계신 서쪽 땅으로 고생하며 올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그래도 너무 힘들어 못 오지 않게 어느 정도 인배를 해줄 법력 있는 사람을 물색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자비심의 화

신인 관세음보살이 자원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야 물론 흡족하실 수밖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금란가사(金 環袈裟: 황금을 섞어 짠 비단으로 만든 가사) 한 벌, 구환석장(九環錫杖: 아홉 개의 고리가 달린 큰 지팡이) 하나, 그리고 세 개의 긴고(緊?)라는 테를 주시네요. 금란가사와 구환석장은 경을 가지러 올 스님에게 줄 것이고, 세 개의 테는 경 가지러 올 스님을 도울 요괴 제압용이지요. 여러분도 친숙하시죠? 손오공이 말 안들을 때 현장법사가 썩는 거, 손오공 머리에 씌워져 있는 그 테 말입니다. 주문 외우면 막 조여들어서 손오공 때굴때굴 구르며 아파하게 하는 거 말입니다. 바로 이 테가 그것이지요.

그것을 받아 지니고 출발한 관세음보살님, 약수(弱水), 또는 유사하(流沙河)라는 곳에서 흉악한 물귀신을 만나네요. 연일조차 뜨지 못하니, 땀목 땀을 생 각은 할 수도 없는 강이라네요. 실제 사막에 접어들면서 만나게 되는 험한 자연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를 말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앞으로 얘기할 중요한 대목이니, 미리 말하면 천기누설! 거기서 만나는 물귀신이 사오정이라는 것만 밝혀두죠. 그리고 사오정의 신분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본디 요괴가 아니라, 하늘에서 벼슬을 하다가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얻어 오면 저팔계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그들이 본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어찌 잘못 되어 지금의 흉한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오공이 마음을 상징하며, 또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양면을 동시에 그런 존재라면, 이 둘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닌 어떤 측면을 상징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의 어떤 측면도, 지금 중생으로 있을 때는 흉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본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디 하늘에서 벼슬 하던 존재라는 것, 무언가 계기가 주어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다시 고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귀신에게는 불법 문중에 든 기명으로 사오정(沙悟淨)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사하에서 만난 것을 인연으로 사(沙)라는 성을 주고, 맑음을 깨우친다는 뜻을 지닌 오정(悟淨)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호, 나칠계님. 얼굴에 기쁘고 반가운 기색이 가득하시네요.

나칠계: 저두 아는 인물이 나오니 정말 반가울 수밖에요. 제가 눈썹해 마지않는 저팔계님의 아우 노릇하는 사오정 아님입니까? 말귀 어두운 사오정!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를 제가 정말 많이 알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한 유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인~ 역시 나칠계님께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거. 모르시는군요, 사오정이 말귀 어둡다는 것은 서유기 전체를 읽었다 뒤져도 없어요. 그건 대한민국에 유명한 허영만이라는 화백의 작품 ‘날아라 슈퍼보드’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찌 나칠계님은 저에게 이렇게 보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드릴 때마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니 가르치는 보람이 팍팍 나는군요.

제가 서유기 원본에 없다고 해서 허영만 화백을 흡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유기를 소재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의 흐름까지 만들어 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요. 고전을 소재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더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혹 그런 새로운 일들에 조금만 시사라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시 원 줄기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저팔계를 만나지요. 저팔계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돼지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요란 말이지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하늘의 관직이었는데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되었는데, 재수가 없어 돼지의 태속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돼지가 되었다는... 그런데 저팔계 하는 짓 바라는 단지 재수가 없어 그리 된 것 같지는 않죠? 꼭 돼지 같은 성향을 가졌기에 돼지 태속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강력한 실증을 지을 수가 없군요. 헛! 나칠계님, 이번에는 좀 성인이 난 기색이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나칠계: 그건 확실하게 재수입니다. 괜히 제게 존경하는 저팔계님 험담하지 마세요. 용모 가지고 그러는 거 정말 아닙니다. 저도 좀 모습이 저팔계님 닮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선일견 많은 중생 때문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제가 아직 장가 못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삼괘 선생! 좀 잘생기신 건 인정하지만 인건 아니지요!

이쿠! 인건 정말 제 잘못입니다. 용모로 사람 평가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를 너무 사실에 적용한 제 잘못이 매우 큼니다. 죄송 죄송~

그래도 제가 잘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나칠계님의 말씀,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회에 봐요.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농협: 121068-56-042256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6월 6일 월 2559년 6월 6일 월 201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상호인쇄

7월 7일 월 2560년 7월 7일 월 201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미니: 상호인쇄

8월 8일 월 2561년 8월 8일 월 201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수첩: 상호인쇄

9월 9일 월 2562년 9월 9일 월 2016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월: 상호인쇄

12월(벽걸이형)달력 200부 이상 @ 1000 원

- 백부이상 @1,200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25.8cm x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30cm x 63cm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정가 1800원
- 규격: 26cm x 19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규격: 9.5cm x 13.4cm
- 매수: 18장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규격: 8.9cm x 9.5cm
- 매수: 16장